

1. 진리의 영은 제자들을 어디로 이끌어 주시나요?

- ① 사랑안으로 ② 지혜안으로
- ③ 진리안으로 ④ 기쁨안으로



2. 오늘 복음내용과 다른것을 골라보세요.

- 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다.
- ② 성령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는다.
- ③ 성령께서 앞으로 올 일들을 알려 줄 것이다.

3. 성령께서는 어떤 것을 알려주시나요?

- ① 뒤로 올 일들 ② 옆으로 올 일들
- ③ 사이로 올 일들 ④ 앞으로 올 일들

4. 다음 복음 말씀을 완성해보세요.

“  에서
 나를  하실 것이다.”



†. 찬미예수님~!
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~?
 저는 명륜동 성당에 있는 **전봉환 예로니모** 신부님이라고 해요!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이네요?
 여러분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나요?
 신부님이 학생 때는 교리시간에만 잠깐 듣고 말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가요?



삼위일체!

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분 하느님이시다!

너무 어렵게 느껴지죠? 1 + 1 + 1은 3인데 왜 1이라고 하는 걸까?
 다른 복잡한 것보다, 친구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었을 때 **한분이신 하느님을 언제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**고 기억하면 좋겠어요.

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**성부 하느님!**
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**성자 하느님!**

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**성령 하느님!**
 하느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느낄 수 있어요. 예수님은 사람이셨으니까, 친구들과 부모님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을 느낄 수 있어요.

그리고,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계시니까, 우리는 양심이나 감정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어요!

이렇게 삼위일체는!!

우리가 언제나 하느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!
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시답니다!

힘들거나 기쁘거나 웃거나 울거나 언제든지!!

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드릴 수 있어요.

그리고 또 언제든지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.
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나, 학교에서나, 친구들과 놀 때나 그 모든 순간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아주시답니다!



삼위 일체 대축일

"성령께서
 나에게서 빈-아
 너희에게
 알려 주실 것이라고
 내가 말하였다."
 (요한 16, 15)



성당

학년

이름

성명

1독서  **여행**

✦ 잠언의 말씀입니다. 8,22-31

하느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하였다. ²² “주님께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. ²³ 나는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다. ²⁴ 심연이 생기기 전에, 물 많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. ²⁵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,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. ²⁶ 그분께서 땅과 들을, 누리의 첫 흙을 만드시기 전이다. ²⁷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, 심연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. ²⁸ 그분께서 위의 구름을 굳히시고 심연의 샘들을 솟구치게 하실 때, ²⁹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바다에 경계를 두실 때, 그분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³⁰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.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. ³¹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2독서  **여행**

✦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. 5,1-5

형제 여러분, ¹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. ² 믿음 덕분에,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. ³ 그분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. 우리가 알고 있듯이,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⁴ 인내는 수양을,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. ⁵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.
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 **여행**

✦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6,12-15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¹² “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. ¹³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.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,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. ¹⁴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.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. ¹⁵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 오마리아수녀의 주일 복음 그림 - 바오로딸쿤텐츠

